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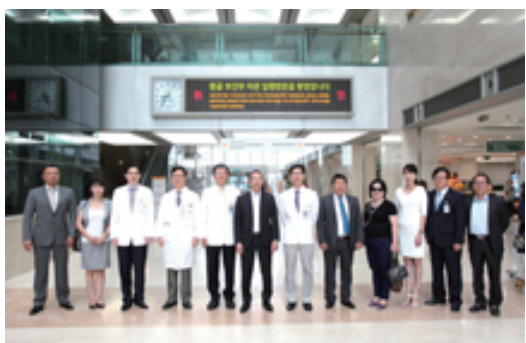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몽골 보건부차관 대표단,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문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위해 고양시를 찾은 몽골 보건부차관 대표단이 9월 5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몽골에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찾던 중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최신 의료장비와 최고 시설 등을 확인하고 선진의료기술을 탐방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건부차관과 관광국장, 국제협력관 등 총 6명이 방문한 대표단은 몽골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치료와 몽골의사 연수 등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눈 후에 본원의 양, 한방 체험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 한방미용센터에서 시행하는 미용치료 및 뜸 체험 등 병원 전반적인 체험과 투어를 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몽골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월에 몽골 사회복지부 장관이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몽골 어문고비 진단치료센터 대표단, 몽골 UBS 방송국 사장단일행 등이 방문하여 병원을 견학한 적이 있다.

02 회복실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 장려상 수상

9월 3일 병원간호사회 주관으로 개최된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에서 본원 회복실팀이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윤리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5월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들 중 8편이 발표작으로 선정되었고, 회복실의 작품도 그 중 하나로 이번 상황극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한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진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03 공화춘 여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기부금 쾌척으로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 제정 기념식 열어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연간 천만원씩 십년간 총 일억원의 기부를 약속한 공화춘 여사의 뜻에 따라 9월 3일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공화춘 여사는 “예전에 동국대학교병원 입원치료 중에 동국대학교병원 교직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교 의학과 교원 중 진료 및 연구실적, 대외위상이 우수한 교원 1인, 본교 의학과 출신 전문의 1인을 선발하여 각각 오백만원씩 10년간 지원을 하게 된다.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소감문 당선작

갇진 5일간의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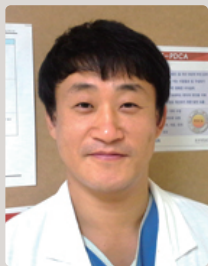
화수고등학교 2학년 신소이

저는 2012년 부터 방학 때마다 동국대학교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병원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제 꿈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좀 더 가까이서 간호사가 하는 일과 병원이라는 환경을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하고 싶던 봉사라 그런지 힘든 일을 하더라도 보람차고 하나하나가 즐거웠고, 제가 봉사했던 병동에서 일을 도우며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이나 환경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제가 봉사를 할 때 고생한다고 해주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힘이 되었고, 얼른 간호사가 되어 직접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환자분들도 빨리 완쾌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봉사활동 때에는 건강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았고 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시간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터뷰 대상자는 외모적으로는 보디빌더 같은 단단한 체격에 얼굴은 나이보다 점잖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게 귀신이라며, 공포영화는 물론이고 혼자서 잠자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신경계검사실 강희구 선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신경계검사실
강 희 구

- **본인 소개?** 79년생 양띠, 보라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2005년 6월 입사, 취미는 유도였으나 요즘은 배드민턴에 푹 빠져있는 임상병리사 강희구입니다.
- **어떤 일을 하는지?** 뇌혈류 초음파검사, 유발전위검사, 안구운동 검사 등을 맡고 있으며 부서원끼리 1년마다 업무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딸 이름이 특이하던데?** 태명이 산(山)이었고 딸이 태어나娥(예별,아)를 붙여 산아(山娥)라고 작명을 하였는데, 둘째 출산을 앞두고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 **부서 홍보?** 신경계검사실은 유부남 3명에 총각 2명이 근무하며 모두들 성격 좋고 운동 좋아하고 웃음도 많고 정말 편찮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시간 될 때 들려주세요~
- **향후 계획?** 개인적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자기개발을 열심히 할 것이며, 부서적으로는 구성원 모두 부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병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알 리 미

김포시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9월 9일(월) 14:30~16:00 | 장소 : 김포시 보건소

강사 : 한방재활의학과 김호준 교수 | 주제 : 중풍예방과 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9월 11일(수) 10:00~11:00 | 장소 : 동구보건소

강사 : 한방여성 의학과 김동일 교수 | 주제 : 마음의 울음 소리를 듣다(장년기 우울증의 예방과 한방치료)

영화상영 일시 : 9월 12일(목) 13:00 | 장소 : 5층 대강당 | 제목: 베를린